이 銳利하게 되며(長二十四㎝) 柄部는 자루를 맞추게 되었는데 刃部에서 漸次로 內孔되어져서 자루를 맞추는 구멍의 徑은 一·七㎝로 鉈의 자루(柄)도 比較的 가는것을 알겠고 使用에 輕便하게 만든것이다。

2、鐵斧

이 鐵斧도 鉈와 同時同所에서 出土되었는데 지금의 鐵斧와 비슷하다。그러나 자루를 맞춘곳이 刃部를 向하여 끼게됨이 다르다고 하겠다。

刃部幅 四·五㎝ 길이 九·七㎝

以上 鐵製武具는 몹시 녹이 슬었고 部分的 損傷이 있음을 말하여둔다。

◎安東 造塔洞에서 發見된 金銅如來立像

安 承 一

一九六四年 十二月 十三日 十五時頃 安東郡 一直面 造塔洞山六의一番地(俗稱 조탑동 뒷골 절터 東方 一五〇m의 地點의 山벌)에서 土地開墾作業을 하든 同洞居住 李東植氏에 依하여 出土된 銅製 塗金佛像은 다음과 같다。

一、크기(㎝) 總高 二·五 身高 八·〇 肩幅 二·五 手間距離 三·五 座臺高 三·五

二、形態

가、佛像 頭上에는 肉髻가 도톨도톨하고 숙인듯한 顔面은 기름하고 두눈은 치켜져있고 兩귀는 길게 어깨까지 나려왔으며 오른편 손은 위로 올려저 손 바닥을 펴고 왼편손은 아래로 드리워 손바닥을 펴고 있다。通肩衣文은 좌우로 전개하면서 下腹部에서부터 膝部에 이르기까지 타원형의 衣紋線이 數個씩 形成된 가운데 띠의 수실이 가슴 아래맺어져 있고 양편 장삼의 소매자락이 무릎까지 길게 늘어졌다。양편 발은 맨발로서 발꾸락이 또렷또렷하다。

나、座臺는 六角의 下臺上에 六角面을 두고 各面內에는 안상흔적이 있고 그 위에 中臺를 두고 몰딩을 형성한다음 복연대를 둔위에 원형기둥을 세운다음 앙연대를 얹고 그 위에 불상을 세웠다。

三、현상은 발견시까지는 형태가 완전하였든 것을 발견 후 무지한 소치로 불상의 양볼밑 좌대 후면의 안상부二면과 복연대등 손상을 가하였음。

四、조치 상황은 현재 안동군 교육청에서 인수하여 금고내에 보관중임。

◎望德寺址의 階段址

秦 弘 燮

新羅 五岳 調査團 一行이 八公山 踏査를 마치고 吐含山의 一部 調査를 爲하여 慶州에 到着했을때 慶州 在住의 尹京烈氏로부터 望德寺址 南方에 階段址로 보이는 一連의 石物이 露出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이곳을 調査한 바 틀림없는 階段址로 推定되었다。

寺址 南端에는 幅 約 一m餘의 붓도랑이 나 있고 그 南쪽

